

# “로컬 인디밴드와 음악 응원해 주세요”

### 광주·서울·경상·강원 등 지역 인디밴드 모임 ‘고라니클럽’ 광주문화재단 지원 ‘春光, 봄의 햇살’ 광주서 첫 공연 성료

“2021-22년 당시 서울에서 여덟 명의 뮤지션들이 모여 ‘뮤지로컬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당시 어떻게 지역 인디 신을 활성화시킬지 고민하다 떠올린 것이 프로젝트 팀 ‘고라니 클럽’입니다. 그로부터 서울의 이한철 음악감독을 중심으로 충청도의 ‘바비핀즈’, 전라도 ‘우물 안 개구리(우안개)’, 경상도 ‘룬디마린’, 강원도 ‘모던 다락방’ 등이 모여 ‘로컬 인디밴드 음악 활성화’라는 가치를 들어왔죠”

‘고라니 클럽’ 멤버인 우안개 성민걸 씨는 고라니 클럽에 동참했을 당시의 기억을 이렇게 떠올렸다. 이들은 종종 열어붙은 로컬 인디 밴드들의 현실을 ‘음악’으로 녹이기 위해 의기투합했다. 로컬 밴드 외에도 밴드 ‘폴립’의 안현우, 전남권에서 ‘MZ세대 프로듀서’로 활동하는 이기환(HAN) 등이 동참해 매달 온라인 미팅은 물론, 직접 만나 지역 음악단의 현실을 공유하며 이번 콜라보 무대를 구상해 왔다.

팀명이 ‘고라니 클럽’인 이유도 궁금하다. 이들은 전국 4개 지역 뮤지션과 마을공동체가 함께 노래를 만드는 공동 음악창작 워크숍을 진행해 왔는데 성미산마을(서울), 대덕구마을(대구), 안심마을을 비롯해 광주는 일곡마을에서 활동했다. 이때 광주 한세봉에 위치한 다랭이 텃밭과 개구리에서 가이드 곡 ‘고라니에게’를 만들었고, 여기서 모티브를 얻어 팀명도 ‘고라니 클럽’으로 짓게 된 것.

‘고라니 클럽’은 광주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공연 ‘春光, 봄의 햇살’을 최근 펼

쳐 클럽 네버마인드(동구 동계천로 76)에서 펼쳤다. 전국 인디 신에서 활동하던 팔색조 아티스트들을 처음으로 광주에 소개하고 이들의 노래를 선보이는 자리였다.

공연에는 광주 인디밴드 ‘우안개’가 출연했는데 데뷔 12년 차인 이들은 쇼걸(본명 성민걸), 라메양(장지혜), 봉봉(이성우)으로 구성된 3인조 혼성팀이다. 지난 2월 발매한 신규 앨범 ‘이불 속 라디오, 우안개입니다’의 다섯 수록곡들을 들려줬다.

공연의 이름을 왜 붙였는지 묻는 ‘춘광’으로 명명됐다고 묻자 우안개 씨 씨는 “최근 고라니 클럽 멤버인 춘천 밴드 ‘모던 다락방’과 광주 ‘우안개’가 각각 신규 EP 앨범을 발매했는데, 두 지역의 앞글자를 본따다”며 “지역 음악계에 따뜻한 봄빛이 내리쬐으면 하는 바람을 투영했다”고 답했다.

충청도 인디밴드 ‘바비핀즈’의 대표 일일규 씨도 이번 공연에 출연할 예정이다. 바비핀즈는 ‘고급진 B급 언어로 일상을 노래하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고 강렬한 드럼 연주와 색깔 있는 작품을 창작해 온 4인조 그룹 사운드다. 특히 임 대표는 2019년 인디워킹 초청 뮤지션으로 캐나다 토론토 투어 공연을 진행했으며, 2022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서 슈퍼 루키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고라니 클럽’을 구성하고 주도하는 이한철 음악 감독도 이번 공연에서 만날 수 있었다. 그는 “관찰이 잘될 거야-”라는 궁정적인 가사를 통해 CF 등에서 ‘국민 격려송’으로 알려진 ‘슈퍼스타’를 부른 싱어송라이터다. 1993년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동상)를 비롯해 MBC 대학가요제 대상(1994)을 수상했으며 현재 국악방송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을 진행 중이다.

고라니 클럽은 “공연에 참여하는 팀들 중 많은 멤버들이 광주에서 ‘첫 공연’을 펼쳐 감회가 깊다”며 “그동안 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 왔기에 광주에서 이들을 소개할 기회가 부족했는데, 이번 공연이 광주 시민들에게 우수한 로컬 밴드들을 알리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인디 밴드들을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서울·충청·경상·강원 등 다양한 로컬 뮤지션들이 모인 프로젝트 밴드 ‘고라니 클럽’ (고라니클럽 제공)

# ‘항구도시’와 ‘출산의례’로 들여다보는 동남아시아 문화

### ACC, 6월까지 ‘박물관 교육’

‘동남아시아의 항구도시’, ‘성과 속의 세계를 넘나드는 출산의례’...

동남아시아의 관점에서 ‘항구’, ‘출산의례’ 등은 보편적인 주제들이라 할 수 있다. 바다를 배경으로 다양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왔던 동아시아, 그리고 민간의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출산의례에는 설화와 민간신앙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박물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는 강좌가 열려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ACC 박물관 교육’을 고리로 올해도 시민들을 찾아간다. 6월까지 아시아문화박물관 문화교육실5에서 열리는 인 ‘문순으로 열린 세계: 동남아시아의 항구도시’와 ‘민간문화와 출산의례’가 그것.

문화교육과 차예준 주무관은 “이번 교육은 아시아문화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을 비롯해 전시, 아카이브를 연계해 진행된다. 데 특징이 있다”며 “동아시아 문화의 토대이기도 한 항구도시, 출산의례를 모티브로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의미를 조명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년 아시아 공예 레지던시 프로그램 워크숍 장면. (ACC 제공)

‘작가와 함께하는 워크숍: 인도네시아 바틱’은 아시아문화박물관 상설전시인 ‘문순으로 열린 세계: 동남아시아의 항구도시’를 펼친다. 지난해 레지던지를 매개로 인도네시아 욱야카르타를 다녀온 이혜미, 오세린 작가가 시민들과 함께한다. 바틱 직물을 토대로 오브제도 제작해보고 인도네시아 생생한 자연환경을 접할 수 있다. (워크숍 5월 9일, 5월 23일, 6월 27일)

출산의례와 동남아시아의 생활문화와의 상관성 등을 다채로운 강의로 접근하는 시간도 있다.

이번 강연은 2023년 아시아플러츠 연구진이 나서며 민간문화 등에 깃든 출산과 연관된 관습 등 생활 풍습을 폭넓게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16일에는 함한희 무형문화연구원장이 ‘성과 속의 세계를 넘나드는 출산의례’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이어 김희경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특별연구원이 ‘한국 출산의례와 설화 속 삼신이야기’(5월 28일)를, 한남수 선문대학교 교수가 ‘붉은 색의 두 얼굴, 중국의 출산의례’(6월 25일)를 모티브로 강연한다. /박성현 기자 skypark@

# 문득문득 떠오르는 지난날 ‘재현과 위로’

### 함평군립미술관, 6월2일까지 기획특별전...임남진·허수영 등 참여

누구나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문득문득 지나온 날들을 떠올릴 때가 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기억, 또는 추억이라고 한다. 기억이란 추억이든 예전의 시간을 생각 속에 소환한다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그 기억은 온전히 동일할 수는 없다. 일테면 장면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밀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현의 영역일 수밖에 없다. 재현은 경험을 다시 생각해내는 것이 본질이므로, 재현의 주체는 새롭게 그것을 재구하거나 심미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함평군립미술관에서 오는 6월 2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특별 기획전 ‘재현과 위로’는 재현을 매개로 위로에 초점을 맞췄다.

전시에서는 노여운, 임남진, 허수영, 황선태 작가의 작품 50점을 만날 수 있다. 그림은 저마다 주위의 풍경과 일상을 잔잔하게 떠올릴 수 있는 그림들로 채워져 있다.

노여운 작가의 ‘기다리다’는 유년의 기억 속에 드리워진 도심 주변부의 오래된 주택을 담았다. 녹슨 철제 옥상 난간과 그 녹빛과 닮은 대문, 사각형의 좁은 불투명한 창문 등이 친근하게 다가온다. 마치 오래된 집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작가가 ‘기다리다’로 표제를 삼은 것은 그런 의도인지 모른다.

한지애 채색을 한 임남진 작가의 ‘나는 너는’은 아련한 정취와 그리움을 환기한다. 미명의 새벽 같기도 한 시간, 건물 사이로 아스라이 보이는 해(달)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힌다. 몇 가닥의 전깃줄이 드리워진 허공 사이로 점점이 앉아 있는 새



노여운 작 '기다리다'

들은 적요하면서도 정밀한 풍경을 담았다. 새가 이편을 보는 것인지, 이편이 새를 보는 것인지, 보는 방향에 따라 상이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 듯하다.

사계절의 풍경을 겹쳐 그린 허수영 작가의 그림은 내면에 드리워진 알 수 없는 깊이를 보여주는 것 같고, 황선태 작가의 작품은 실내 공간에 놓인 사물과의 관계를 빛으로 구현한다.

한편 이태우 관장은 “4명 작가들의 작품은 저마다 다른 관점과 색으로 지나온 날들 또는 현재의 시간을 초점화하고 있다”며 “따뜻하면서도 잔잔한 감성을 통해 재현과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피아노아카데미 창단 30주년 콘서트 장면. (광주피아노아카데미 제공)

# ‘가브리엘 포레 서거 100주년 기념연주회’

### 광주피아노아카데미, 5월7일 금호아트홀

프랑스 고전주의자로 불리는 작곡가 가브리엘 포레(1845-1924). 그는 바로크 시대의 대가로 불리는 ‘장 필립 라모’ 이후 가장 진보적인 작곡가로 꼽힌다. 포레의 피아노곡들은 세련된 미학과 기품, 진득한 서정성과 미묘한 화성음을 특징으로 삼아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광주피아노아카데미가 ‘가브리엘 포레 서거 100주년 기념연주회’를 5월 7일 오후 7시 30분 금호아트홀에서 연다. 포레 서거 100주년을 맞아 그의 피아노 독주곡 및 듀엣곡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공연을 기획한 예나엔터테인먼트 김찬우 대표는 “세계의 음악계에서 포레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연주회가 기획되어 있는데, 이번 공연도 그중 하나”라며 “서정음악의 대가인 포레의 피아노 작품 중 각 시기를 대표하는 곡들을 선별해 연주할 예정이다”고 했다.

독주곡 ‘비르카를(베토벤) 12번 in E플랫, Op

.106’이 울려 퍼질 예정이다. 그가 작곡한 13곡의 베토벤 중에서도 화려함과 격정, 경감한 음과 낭만적 서정이 깃들어 있는 작품이다. 이어 ‘즉흥곡 2번 Op.31&5번 OP.102’, ‘테마와 변주곡 Op.73’ 등도 만날 수 있다.

낭만파 시대에 주로 작곡했던 피아노 소곡 ‘녹턴 2번, Op.33’과 ‘녹턴 4번, Op.36’도 관객들을 만난다. 18세기 세레나데와 유사한 의미로, 감상적인 정취를 담은 야상곡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작품. 이 밖에도 피아노 듀엣(포헨즈)곡인 ‘돌리모음곡 Op.56’도 레퍼토리에 있다.

광주피아노아카데미 문현옥 회장은 “광주피아노아카데미가 추구하는 목표인 피아노 음악의 전문성과 대중성 모두를 만족시키는 특별한 음악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명료성’과 ‘통일성’ 등을 특징으로 한 포레의 곡들이 관객들의 마음에 아름다운 울림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전석 무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